濟州道의 家計管理實態에 關한 調査硏究

—濟州市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amily Finance Management in Jeju Island

—with Research on some housholds in Jeju City—

濟州大學 家庭敎育科
專任講師 黃 德 旬
J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Instructor.; **Duck Soon Hwang**

<目 次>

Ⅰ. 序 論
1. 硏究目的과 內容
2. 理論的 背景과 先行硏究
Ⅱ. 硏究方法
1. 調査道具와 方法
2. 資料處理
3.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4. 硏究의 制限點
Ⅲ. 結果 및 解釋
1. 貨幣所得 類型分析
2. 家計管理實態分析
3. 貨幣所得類型과 家計管理
Ⅳ. 要約 및 結論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family finance management in Jeju Island. And then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family finance management of Jeju households.

For the purposes, 157 household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This study dealt with the family income forms and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income forms and the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Percentage and X^2 were undertaken as statistical metho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family income forms of the households of Jeju Island showed the trend of irregularity and unbalance. And there were 5 types of family income forms.

2. In most of the households, the couple was centered on managing the family finance.

3. In many households, wife holds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and she manages it and the total income. Here we can conclude as follows. For the desirable and balanced household management, they must have some regular and continuous income sources, and try to plan and budget.

*1980년 6월 현재, 全南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家庭管理學科 在職中.

Ⅰ. 序 論

1. 研究目的과 內容

家庭은 社會的 環境要因에 對應하는 有機體로써 여러가지 社會的 變因에 따라 그 機能과 役割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家族의 欲望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원하는 目標에 도달하려는 데에는 어느 社會나 그 存在意義가 一致한다. 家庭管理란 家族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家族資源을 啓發하고 活用해나가는 一連의 過程이다[1]. 現代社會에서 가장 重視되는 家族資源의 하나는 貨幣所得이라 할수 있는데, 그것은 資本主義社會에서 화폐의 기능이 단순한 購買力의 表象으로서만이 아니라 個人의 發達에 量的, 質的으로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2,3]. 그러므로 家庭은 "最大의 管理效果를 얻기위해 가능한 한 화폐소득을 增大시킴으로써 더 많은 欲望充足을 이룰 수 있도록 資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家庭管理는 주어진 資源 (즉 所得)으로 어떻게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支出의 문제를 더 重視하게 되었고, 따라서 가정은 消費經濟面이 강화되고 있다[4]. 이 所得과 支出의 管理가 곧 家計管理로, 經濟發達에 따라 가계관리는 가정관리의 핵심적 활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思考方式과 態度, 行動樣式은 時代的, 地理的 환경에 따라 指向하는 바가 다르고, 同時代, 同民族이 같은 狀況에 처한다해도 저마다 위치하는 階層이 다르므로,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나, 그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르고 評價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하여도 도시와 농촌, 어촌 등 지방에 따라서 家庭管理는 그 형태가 다르고, 資源活用의 限界가 다르므로 家計管理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5].

濟州島는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文化를 형성하고 있고, 濟州島의 家族은 육지의 가족과 상이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6]. 따라서 제주도 지방의 가계관리형태는 육지의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것으로 思料되며, 그 特性에 맞는 관리형태를 개발하여야 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일부 가계를 조사하여 家計管理行動實態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管理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려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所得類型이 家計管理形態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비적인 조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目的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다룬다.

(1) 제주도 家計의 貨幣所得類型의 短期分析

所得類型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主婦의 就業有無, 家計의 就業狀況, 社會經濟的 生活水準, 주된 家業에 따른 差의 검증.

(2) 제주도 家計管理行動의 實態調査와 變因에 의한 差의 검증

A. 生計費 부담자

B. 總收入 管理者

C. 生計費 管理者

D. 生計費 支出時 豫算生活

E. 生計費 支出時 家族의 意思疏通度와 意思決定權者

F. 家計管理의 結果 家族員의 滿足度

위 조사내용에 대한 變因은 主婦의 연령, 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가계의 취업상황, 주된 家業,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을 들 수 있고, A는 B와 C에, B와 C는 상호간에, E는 F에 영향을 주는 變因으로 보고 이에 따른 差의 검증을 했다.

(3) 貨幣所得類型에 따른 家計管理行動 實態의 差異

2.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家計는 所得과 支出로 構成되는데, 그 形態가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한다.

(1) 貨幣所得의 短期分析

화폐소득의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1년동안 家計에 들어오는 화폐소득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으로 短期分析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一生동안 화폐소득수준의 변화상태를 추정하는 것으로 長期分析이라 한다.

短期分析은 家計의 年間所得을 예측하여 家計支出의 短期, 長期 計劃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기 때

문에 바람직한 家計運營上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7].

Nickell과 Dorsey는 년간 화폐소득의 기본형태로써 7가지 유형 (Annual Income Profile)을 추출하였다[8,9]. (상세한 설명은 생략함 참고문헌 참조).

그러나 Nickell과 Dorsey의 7유형 이외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家計의 所得類型을 파악하고, 각기 그 형태에 알맞는 家計管理類型을 啓發하여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黑字家計를 운영하고, 가족원의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자면 소득분석을 통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기간에 대비하고, 소득이 많은 기간동안 계획적인 지출행동을 해야할 것이다[10].

화폐소득유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2) 家計管理形態

家計에 들어온 총소득을 관리하는 방법과 生計費支出에 대한 관리 방법을 家計管理라 하고, Nickcell과 Dorsey는 5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11].

첫째, The Family Finance Plan (豫算策定方法).

둘째, The Allowance or Apportionment Method (生計費 및 1人所有割當方法)

세째, The Equal-Salary Method (生計費를 제외한 3人分配方法)

네째, The fifty-fifty System (2人均等分配方法)

다섯째, The Handout Method (要求時 支出方法).

Nickell과 Dorsey의 이 分類는 管理者가 夫婦中心으로 되어 있어 西歐社會에서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家族制度上 管理者가 반드시 夫婦로만 限定되는 게 아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서 家計管理權이 주로 누구에게, 어느정도 주어지는가에 대한 先行研究로는 崔在錫[12,13], 李效再[14], 李基春[15], 梁會水[16], 高凰京외[17]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家計管理權의 所在에 관한 것들이고, 家計管理形態에 관한 연구로는 李基春[18], 朴明姬[19]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통적 사회, 농촌사회일수록 家長에게 家計管理權이 많이 주어져 있고, 都市에서는 주로 부인이 총소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地理的 環境에 의한 價値觀과 文化의 정도에 따라서 家計管理形態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사회를 對象으로 한 研究들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화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부인에게, 姻母로부터 主婦에게 家計管理權이 이양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研究方法

1. 調査道具와 方法

서울대학교 李基春교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을 가한 후, 1980년 11월 25일부터 보름간, 임의추출에 의해 제주시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213부 중에서 157부를 분석자료로 택하였다. 응답은 반드시 가정관리자가 하도록 사전지시 되었다.

2. 資料處理

통계방법으로서, 화폐소득유형과 가계관리실태에 관한 결과는 백분율 (%)을, 각각의 變因에 의한 差의 검증에는 X^2를 사용하여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로 인정하였다.

3.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1) 연령—평균 연령은 42.4세였고,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40대층이 가장 많아 57.32%이다.

2) 학력—국민학교 졸업이하가 47.13%로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3) 평균가족인원—가족수는 2人부터 12인까지 분포를 보였고, 7인 가족이 48가구(30.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6.6인이었다.

4) 사회경제 적생활수준—월평균 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는데, 中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	N	%
Age		
30's	49	31.21
40's	90	57.32
50's	18	11.46
Educated Level (Edu. L.)		
Primary School	74	47.13
Junior 〃	47	29.94
Senior 〃	30	19.11
College	6	3.82
Social Ecnomic Status (S.E.S)		
Upper-Middle	60	38.22
Lowel-Middle	66	42.04
Low	31	19.75
Housewife's Employment (Hw. E.)		
Yes	33	21.02
No	124	78.98
Household's Employment Condition (H.E.C.)		
Only Husband	89	56.69
Only Wife	11	7.01
Both Employed	22	14.01
Both Unemployed	35	22.29
Household's Major Job (H.M.J.)		
Farming	33	21.02
Industry	48	30.57
Free Job	4	2.55
Wage Earner	59	37.58
Labor	13	8.82
Family Form		
Nuclear Family	150	95.5
Stem Family	7	4.5
Total	157	100.00

上流가 38.22%, 中下流가 42.04%, 下流가 19.75%로 中流層이 主流를 이룬다. (이하 표에서는 S.E.S로 略함)

5) 婦人의 就業有無—33명이 취업하고 있었고, 職種은 장사, 가내수공업등 노동직이 많았다. (이하 표에서는 Hw.E로 略함)

6) 家計의 취업상황—가족원의 취업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남편만 취업한 경우가 51.69%로 가장 많고, 부인만 취업한 경우는 7.01%, 부부가 취업한 것은 14.01%, 부부가 공동 失業상태인 것이 22.29%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부가 영세 발농사에만 의지하는 가계는 부부가 공동실업상태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하 표에서는 H.E.C.으로 略함).

7) 主된 家業—농경가구가 21.02%, 사업자가계가 30.57%, 전문직가계 (의사변호사등)가 2.55%, 공무원, 회사원등의 월급여 가계가 37.58%, 노동자 가계가 8.28%로 나타났다. (이하 표에서는 H.M.J.이라 略함).

8) 가족형태—95.5%인 150가구가 夫婦家族이었고, 媤父母를 모신 경우는 단 7가구 (4.5%)에 불과하였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제주도 일부의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① 조사대상가구는 반드시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표집대상이 적으므로 확대해석이 어렵고,

③ 따라서 이 결과는 시험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Ⅲ. 結果 및 解釋

1. 所得形態分析

1년간 家計에 들어오는 所得의 年中變化에 따라서 所得形態를 7가지로 분류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이 화폐소득의 단기분석에 의하여 조사한 제주도 가계의 所得形態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제 1 형; 그림 Ⅰ의 1 같이 年中 평균적이고 안정된 所得이 定期的으로 있어서 所得의 크기와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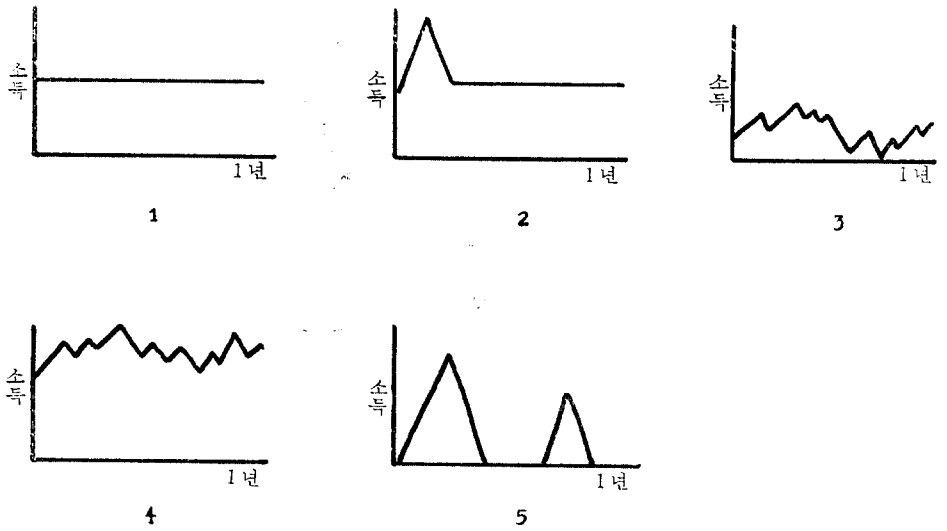

Fig. Ⅰ. The Households' Income Forms of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Annual Income Profile by Researcher.

期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家計는 35.03%인 55家口였다.

제 2 형; 그림 2처럼 年中 한두차례 高所得이 있는 時期가 있으며, 나머지는 평균적인 소득이 定期的으로 계속된다. 제 1 형의 家計로써 財產所得으로 집세나 土地에 의한 收入이 있는 家計인데, 濟州島의 경우 年初에 집세로써 「죽어지는 세」를 받거나, 봄·가을에 유채 및 밀감 수확이 高所得의 主原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7%인 11家口였다.

제 3 형; 그림 3처럼 年中 所得의 時期와 크기가 아주 不規則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는 29.94%인 47家口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 4 형; 그림 4. 이것은 所得의 크기와 時期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제 3 형과 유사하지만, 최소한 基本的인 水準의 所得은 항상 보장된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비교적 안정된 家計라 할수 있으며, 基本的인 所得의 主原因은 財產所得으로써 利子나 當配金이었고, 최소한의 商品賣出이 있는 一般商人階層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총 14가구 (8.92%)가 속한다.

제 5 형; 그림 5. 이것은 1年에 한두차례 비교적 高所得이 있으나 나머지 期間에는 거의 所得이 없는 家計로 30家口 (19.11%)였다. 財產所得源도 없고, 家族中 就業者도 없는 家計로써 所得의 原因은 農事에 의한 收入이나 「죽어지는貰」의 형태로써의 집세만이 年中 유일한 所得이다.

이상과 같이 5가지의 所得類型이 나타났는데, 그림상으로는 Nickell의 分類와 비슷하나 위에서 분석한 바대로 그 原因은 濟州道의 독특한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性格上 3가지로 크게 나누어 分析해보려 한다.

① **A형**; 固定的이고 年平均的인 貨幣所得을 갖는 家計로써 所得의 時期와 크기를 거의 예상할 수 있는 集團으로, 제 1 형인 55家口 (35.03%)가 여기 속한다.

② **B형**; 最小限의 基本的인 固定所得이 있고 이 부분은 所得의 크기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불규칙적이고 변동적인 所得이 첨가되는 集團으로 제 2 형 11家口와 제 4 형 14家口가 해당되어 25家口 (1.92%)가 속한다. 이러한 家計에서는 기본소득으로써 生計를 유지하고, 변동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여야 할것이다.

③ **C형**; 불규칙적인 所得을 갖는 集團으로 所得

Table 2. Analysis of the Income Forms according to the Variables

	Total		A type		B type		C type	
	N	%	N	%	N	%	N	%
Total	157	100	55	35.3	25	15.92	77	49.04
Housewife's Employment (Hw. E.)								
Yes	33	100	7	21.21	5	15.15	21	63.64
No	124	100	18	38.71	20	16.13	56	45.16
		$x^2=4.11$		df=2		.05<p(n.s)		
Household's Employment Condition (H.E.C)								
Only Husband	89	100	46	51.69	18	20.22	25	28.09
Only Wife	11	100	2	18.18	2	18.18	7	63.64
Both employed	22	100	5	22.73	3	13.64	14	63.64
Both unemployed	35	100	2	5.71			31	88.57
		$x^2=41.46$		df=6		p<.001		
Household's Major Job (H.M.I.)								
Farming	33	100	0	0.0	3	9.09	30	90.91
Industry	48	100	0	0.0	12	25.00	36	75.00
Free Job	4	100	1	25.00	2	50.00	1	25.00
Wage Earner	50	100	51	86.44	8	13.56	0	0.00
Labor	13	100	3	23.08	0	0.0	10	76.92
		$x^2=132.03$		df=8		p<.0001		
Social-Economic Status (S.E.S·)								
Upper-Middle	60	100	19	31.67	17	28.33	24	40.00
Lower-Middle	66	100	34	51.52	8	12.12	24	36.36
Low	31	100	2	6.45	0	0.0	29	93.55
		$x^2=39.56$		df=4		p<.001		

의 크기와 시기를 예상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하여도 景氣變動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家計管理上 극히 불리한 형태이며, 家庭管理의 必要性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집단이라 하겠다. 제3형과 제5형이 여기에 속하며 총 77家口(49.04%)로 전체의 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所得實態는 濟州地域에서 家庭管理의 必要性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뜻 한다.

다음으로, 濟州道家計의 所得形態에 영향을 주는 變因으로써 主婦의 就業, 家計의 就業狀況, 主된 家業, 社會經濟的 生活水準에 대해 調査하였다

첫째, 主婦의 就業有無는 所得形態에 有意한 差異를 주지는 않았다(Table 2 참조).

그러나 主婦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所得形態가 不安定한 경향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女性

就業이 定期的인 給料를 지불받는 事務職이나 專門職보다 流動的인 職種 (勞動이나 商業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就業主婦 33人中 敎師나 會社員등 常用職은 불과 7人이었고, 나머지는 장사나 勞動에 종사하고 있어서 所得이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이었다.

둘째, 所得形態는 家計의 就業狀況에 따라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家族中 1人도 對外的인 就業이 없는 경우 家計의 所得形態는 극히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88.57%). 한편, 婦人만 취업한 경우나, 夫婦가 취업한 경우에도 불안정적인 소득형태가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나라 女性就業의 脆弱性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家計가 安定되려면 正常的이고 固定的인 所得源 (例, 봉급, 이자, 배당금등) 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째, 主된 家業과 所得形態의 관계를 보면 月給與家計는 극히 안정된 소득형태를 (86.44%) 보여주고 있어서 所得의 時期와 크기를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支出計劃을 세울 수 있어서 家計管理가 用易한 데 비하여, 農業이나 事業者家計는 대부분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勞動者家計도 76.92%가 불안정한 형태여서 所得의 平準化와 支出의 合理化를 기하도록 家計管理에 세심한 努力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써 李基春등은 먼저 예상가능한 所得을 平均的으로 配當하고, 이보다 많은 달에는 저축을 하여 부족한 달에 充當하도록 하거나, 基本的 收入으로써 生計費를 充當하고 기타의 所得은 長期的인 안목으로 財産所得源을 마련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네째, 社會經濟的 生活水準에 따라 分析해보면, 生活水準이 높은 集團이 안정된 소득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家計管理 實態分析

A. 生計費의 부담

生計費를 부담하는 사람의 家內發言權이나 意思決定權은 다른 家族에 비해 클 것으로 思料된다.

전체의 약 반인 49.68% 의 家計에서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고, 28.66%는 부인이, 21.66%는 夫婦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變因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표 3 참조)

① 主婦의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② 학력별 차이는 인정되었다.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서, 제주도 여성의 근로 정신이 엿보인다.

③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90.91%가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아주 의미있는 차이가 보인다.

④ 취업상황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경제력에 따라서 취업한 사람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고, 공동으로 취업하거나 공동으로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력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⑤ 주된 家業에 따른 차이도 인정되었다. 월급여가계에서는 부인의 부담 비율이 적었고, 농가와 노동자가계에서 특히 부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부터 제주도 여성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⑥ 생활수준별 차이도 인정되었다.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데 관계하는 비율은 총 50.32%로써,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21.02% (N=33) 인데 비하여 그의 2.5배에 가까운 50.32%에서 부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데 관계된다는 결과는 제주도 여성의 경제력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될 것이며, 史的 측면에서 제주 여성의 노동 경제력에 관한 원인 분석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B. 총수입관리의 주도권

총수입의 관리자(Total Income Manager)가 남편인 경우가 26.11%이고, 부인인 경우는 70.70%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3.18%였다. (표 4 참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李基春의 연구[18]에서 「가계관리의 주도권」을 세대주가 갖는 경우는 74%였고,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朴明姬의 연구[19]에서는 23.5%였는데, 이들 선행연구와 비교

Table 3. Analysis of the Hol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Total		Husband		Wife		Both	
	N	%	N	%	N	%	N	%
Total	157	100	78	49.68	45	28.66	34	21.66
Age								
30's	49	100	28	57.14	13	26.53	8	16.33
40's	90	〃	41	45.56	25	27.78	24	26.67
50's	18	〃	9	50.00	7	38.89	2	11.11
		$x^2=4.23$		df=4		n.s.		
Edu.								
Primary school	74	100	27	36.49	26	35.14	21	28.38
Junior 〃	47	〃	26	55.32	11	23.40	10	21.28
Senio 〃	30	〃	21	70.00	6	20.00	3	10.00
College	6	〃	4	66.67	2	33.33	0	0.00
		$x^2=12.83$		df=6		$p<.05$		
Hw.E.								
Yes	33	100	3	9.09	19	57.58	11	33.33
No	124	〃	75	60.84	26	20.97	23	18.55
		$x^2=28.67$		df=2		$p<.0001$		
H.E.C.								
only Husband	89	100	64	71.91	16	17.98	9	10.11
only Wife	11	〃	0	0.00	10	90.91	1	9.09
both employed	22	〃	3	13.64	9	40.91	10	45.45
both unemployed	35	〃	11	31.43	10	28.57	14	40.00
		$x^2=59.45$		df=6		$p<.0001$		
H.M.J.								
Farming	33	100	9	27.27	10	30.30	14	42.42
Inpustry	48	〃	24	50.00	15	31.25	9	18.75
Free job	4	〃	2	50.00	2	50.00	0	0.00
Wage Earner	59	〃	39	66.10	11	18.64	9	15.25
Labor	13	〃	4	30.66	7	53.85	2	15.38
		$x^2=22.17$		df=8		$p<.005$		

S.E.S.								
Upper-Middle	60	100	36	60.00	14	23.33	10	16.67
Lower-Middl	66	〃	34	51.52	17	25.76	15	22.73
Low	31	〃	8	25.81	14	45.16	9	29.03
		$x^2=10.12$		df=4		p<.05		

Table 4-1. Analysis of the Total Income Managrer

	Total		Husband		Wife		Both	
	N	%	N	%	N	%	N	%
Total	157	100	41	26.11	111	70.70	5	3.18
Age								
30's	49	100	13	26.53	34	69.39	2	4.08
40's	90	〃	22	24.44	66	73.33	2	2.22
50's	18	〃	6	33.33	11	61.11	1	5.56
		$x^2=1.50$		df=4		n.s.		
Edu. L.								
Primary school	74	100	20	27.03	50	67.57	4	5.41
Junior	47	〃	13	27.66	33	70.22	1	2.13
Senior	30	〃	6	20.00	24	80.00	0	0.0
College	6	〃	2	33.33	4	66.67	0	0.0
		$x^2=3.56$		df=6		n.s.		
Hw. E.								
Yes	33	100	7	21.21	25	75.76	1	3.03
No	124	〃	34	27.42	86	69.35	4	3.23
		$x^2=0.54$		df=2		n.s.		
H.E.C.								
only Husband	89	100	22	24.72	66	74.16	1	1.12
only Wife	11	〃	1	9.09	10	90.91	0	0.0
both employed	22	〃	6	27.27	15	68.18	1	4.55
both unemployed	35	〃	12	34.29	20	57.14	3	8.57
		$x^2=8.76$		df=6		n.s.		
H.M.J.								
Farming	33	100	10	30.30	20	60.61	3	9.09
Industry	48	〃	17	35.42	31	64.58	0	0.0

Free Job	4	〃	2	50.00	2	50.00	0	0.00
Wage Earner	59	〃	12	20.34	46	77.97	1	11.69
Labor	13	〃	0	0.0	12	92.31	1	7.69
		$x^2=15.62$		df=8		p<.05		
S.E.S.								
Upper-Middle	60	100	19	31.67	40	66.67	1	1.67
Lower-Middle	66	〃	19	28.79	46	69.70	1	1.52
Low	31	〃	3	9.68	25	80.65	3	9.69
		$x^2=9.79$		df=4		p<.05		

Table 4-2. Hol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h) and Total Income Manager (t)

		t	Husband		Wife		Both	
h			N	%	N	%	N	%
Husband	78	100	26	33.33	51	65.38	1	1.29
Wife	45	100	6	13.33	38	84.44	1	2.22
Both	34	100	9	26.47	22	64.71	3	8.82
Total	157	100	41	26.11	111	70.70	5	8.82
		$x^2=10.47$		df=4		p<.05		

해 보면 조사대상가구중 魚家는 없었어도 제주도는 농촌보다 어촌과 비슷한 가계관리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것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 생계비 부담이나 관리에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제주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變因에 의한 차이를 보면 (표 4)와 같다.

① 주부의 연령에 의한 차이는 없다.

② 학력에 의한 차이도 없다.

③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미취업인 경우보다 총수입관리권을 갖는 비율이 약간 크나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취업상황에 따라서, 부인만 취업하고 있는 11가구중 10가구 (90.91%)가 부인에게 총수입관리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계의 취업상황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⑤ 주된 가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업자 가계나 자유전문직 가계에서는 남편에게, 월급여 가계와 노동자 가계에서는 부인에게 관리권이 있는 경향이다(p<.05).

⑥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총수입의 관리권은 남편에게,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부인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p<.05).

⑦ 생계비부담자와 총수입관리자의 관계를 보면 (표 4-2)에서, 생계비 부담자가 총수입을 관리하는 가계는 64가구로 (남편, 26, 부인 38가구) 생계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총수입을 관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C. 생계비관리의 주도권

총소득중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지출관리하는가 하는 것도 가계관리의 핵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표 5-1)에서 보면, 생계비 관리는 총수입 관리와 비슷하게 부인이 관리하는 비율이 67.52%로써 다른 선행연구결과보다 부인의 관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편의 관리율은 5.10%로 현저히 낮다. 부부의 공동관리가 27.39%로 비교적 민주적인 관리양식을 엿볼 수 있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Table 5-1. Analysis of the Manager of Cost of Family Living

	Total		Husband		Wife		Both	
	N	%	N	%	N	%	N	%
Total	157	100	8	5.10	106	67.52	43	27.39
Age								
30's	49	100	3	6.12	37	75.51	9	18.37
40's	90	〃	3	3.33	58	64.44	29	32.22
50's	18	〃	2	11.11	11	61.11	5	27.78
	$x^2=4.85$		df=4		n.s.			
Edu.L.								
Primary school	74	100	3	4.05	49	66.22	22	29.73
Junios	47	〃	4	8.51	29	61.70	14	29.79
Senior	30	〃	1	3.33	23	76.67	6	20.00
College	6	〃	0	0.0	5	83.33	1	16.67
	$x^2=3.67$		df=6		n.s.			
Hw. E.								
Yes	33	100	1	3.03	24	72.73	8	24.24
No	124	〃	7	5.65	82	66.13	35	28.23
	$x^2=0.67$		df=2		n.s.			
H.M.J.								
Farmer	33	100	3	9.09	18	54.55	12	36.36
Industry	48	〃	0	0.0	32	66.67	16	33.33
Free Job	4	〃	2	50.0	2	50.0	0	0.0
Wage Earner	59	〃	3	5.08	42	71.19	14	23.73
Labor	13	〃	0	0.0	12	92.31	1	7.69
	$x^2=27.10$		df=8		$p<.005$			
S.E.S.								
Upper-Middle	60	100	4	6.67	39	65.00	17	28.33
Lower-Middle	66	〃	2	3.03	45	68.18	19	28.79
Low	31	〃	2	6.45	22	70.97	7	22.58
	$x^2=1.40$		df=4		n.s.			

H.E.C.								
only Husband	89	100	2	2.25	65	23.03	22	24.72
only Wife	11	〃	0	0.0	11	100.0	0	0.0
both employed	22	〃	1	4.55	13	59.09	8	36.36
both unemployed	35	〃	5	14.29	17	48.57	13	37.14
		$x^2=17.11$		df=6		p<.01		

Table 5-2. Hol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Holder) **and Manager of it** (manager)

	manager		Husband		Wife		Both	
	N	%	N	%	N	%	N	%
Holder	157	100	8	5.10	106	67.52	43	27.39
Husband	78	100	6	7.69	50	64.10	22	28.21
Wife	45	100	1	2.22	41	91.11	3	6.67
Both	34	100	1	2.94	15	44.22	18	52.94
			$x^2=23.85$		df=4		p<.001	

Table 5-3. Total Income Manager (TI.M) **and Manager of the Cost of Family Living** (M.C)

	M.C		Husband		Wife		Both	
	N	%	N	%	N	%	N	%
T.I.M	157	100	8	5.10	106	67.52	43	27.39
Husband	41	100	8	19.51	13	31.71	20	48.78
Wife	111	100	0	0.0	93	83.78	18	16.22
Both	5	100	0	0.0	0	0.0	5	100.00
			$x^2=59.68$		df=4		p<.0001	

變因에 의한 차이를 보면 〈표 5-1.2,3 참조〉.

① 주부의 연령에 의한 차이는 없다.

② 학력별 차이도 없다.

③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취업상황에 의한 차이는 있었다. 특히 부인만 취업한 경우 (N=11) 생계비관리자는 100% 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계비 부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이며 (표 5-2) 에서 보듯이 생계비부담자에게 생계비관리권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 91.11%가 생계비관리를 하고 있어서 평균인 67.52%에 비해 월등히 높다.

⑤ 주된 가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소득관리의 경우처럼 자유전문직가계는 50%가 남편에게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즉, 직업상 어느 1인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나 가계와 기업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주는 결과이다.

Table 6. Family Finance Management Planning

Planning	Total		in detail		roghly		not at all	
	N	%	N	%	N	%	N	%
Total	157	100	35	22.29	48	30.57	74	47.13
Age								
30's	49	100	14	28.57	12	24.49	23	46.94
40's	90	〃	17	18.89	35	38.89	38	42.22
50's	18	〃	4	22.22	1	5.56	13	72.22
	$x^2=10.51$		df=4		p<.05			
Edu. L.								
Primary school	74	100	10	13.51	14	18.92	50	67.57
Junior	47	〃	15	31.91	17	36.17	15	31.91
Senior	30	〃	8	26.67	15	50.00	7	23.33
College	6	〃	2	33.33	2	33.33	2	33.33
	$x^2=25.30$		df=6		p<.001			
S.E.S.								
Upper-Middle	60	100	14	23.33	24	40.00	22	36.67
Lower-Middle	66	〃	18	27.27	17	25.76	31	46.97
Low	31	〃	3	9.68	7	22.58	21	67.74
	$x^2=10.06$		df=6		p<.05			

⑥ 생활수준별 차이는 없었다.

⑦ (표 5-3)에서 총수입관리자가 생계비를 관리하는 경우는 101가구 (남편 8, 부인 93)로 전체의 64.3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호관계가 밀접하였다. 여기서 한 사람이 총수입과 생계비 지출 관리를 도맡는 것은 관리상의 易點은 있으나, 잘못하면 1人에 의해 가계관리가 좌우될 우려가 크다.

D. 예산생활

(표 6)에서, 47.13%가 전혀 예산없이 필요한 때마다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비목별로 예산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관리를 행하는 가계는 22.29%로 나타났다. 30.57%는 대강 큰 것만 예산을 세운다고 답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목별로 상세한 예산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예산생활을 하고 있다. 생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전혀 예산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의 불균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그럴수록 더 세밀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계관리의 운영상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부인의 취업유무, 가계의 취업상황, 주된 가업 등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표생략).

E. 가족의 의사소통도

지출의사결정시, 가족의 의사소통도가 원활하고 참여도가 높으면, 실행에 있어서 가족원으로 부터 책임감있는 협력을 구할 수 있다.

(표 7)에서, 항상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있는 것은 24.20%, 비교적 자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

Table 7. Communication Level within Family Members at Family Decision-Making Situation

	Total		Always		Usually		Sometimes		Not at all	
	N	%	N	%	N	%	N	%	N	%
Total	157	100	38	24.20	24	15.29	72	45.86	23	14.65
Age										
30's	49	100	20	40.82	4	8.16	20	40.82	5	10.20
40's	90	100	15	16.67	17	18.89	42	46.67	16	17.78
50's	18	100	3	16.97	3	16.67	10	55.56	2	1111.11
			$x^2=12.60$		df=6		p<.05			
Edu. L.										
Primary school	74	100	9	12.16	11	14.86	40	54.05	14	18.92
Junior school	47	100	16	34.06	6	12.77	21	44.68	4	8.51
Senior school	30	100	11	36.67	7	23.33	9	30.00	3	10.00
College	6	100	2	33.33	0	0.0	2	33.33	2	33.33
			$x^2=17.79$		df=9		p<.05			

Table 8-1. Decision-Maker and Total Income Manager

	Total		Husband		Wife		Both		Children	
	N	%	N	%	N	%	N	%	N	%
Husband	41	100	21	51.22	0	0.0	16	39.02	4	9.76
Wife	111	100	36	42.43	29	26.13	37	33.33	9	8.11
Both	5	100	2	40.40	0	0.0	3	60.00	0	0.0
	157	100	59	37.58	29	18.47	56	35.67	13	8.28
			$x^2=16.49$		df=6		p.01			

는 것은 15.29%, 어쩌다 가끔 가족의 의사를 묻는 가계는 45.86%, 전혀 가족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마음대로 하는 가계는 14.65%였다.

주부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유무, 가계의 취업상황, 주된 가업, 생활수준별 차이는 없었다(표 생략).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가계 지출 의사결정시 발언권의 정도를 알아 보았다(표 8-1).

37.58%의 가계가 남편의 의사를 주로 따르고, 에서 부인 위주로 의사결정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18.47%에 불과하며, 시부모가 관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서 제주도 가계가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최종 의사결정권은 곧 家內 발언권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총수입관리자나 (표 8-1), 생계비 관리자는 (표

Table 8-2. Decision-Maker and Family Living Cost Manager

	Total		Husband		Wife		Both		Children	
	N	%	N	%	N	%	N	%	N	%
Husband	8	100	4	50.00	0	0.0	3	37.50	1	12.50
Wife	106	100	35	33.02	28	26.42	35	33.02	8	7.55
Both	43	100	20	46.51	1	2.33	18	41.86	4	9.30
	157	100	59	37.58	29	18.47	56	35.67	13	8.28

$x^2 = 13.97$ df = 6

Table 8-3. Decision-Maker and Hol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Total		Husband		Wife		Both		Children	
	N	%	N	%	N	%	N	%	N	%
Husband	78	100	34	43.59	10	12.82	30	38.46	4	5.13
Wife	45	100	13	28.89	17	37.78	7	15.56	8	17.78
Both	34	100	12	35.29	2	5.88	19	55.88	1	2.94
	157	100	59	37.58	29	18.47	56	35.67	13	8.28

$x^2 = 31.23$ df = 6 $p < .001$

Table 9. Communication Level within Family Memeber (A) and Family Members' Satisfaction Level (B)

		B	very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A			N	%	N	%	N	%	N	%
always	38	100	17	44.74	17	44.74	3	7.89	1	2.63
usually	24	100	5	20.83	16	66.67	3	12.50	0	0.0
sometimes	72	100	9	12.50	49	68.06	14	19.44	0	0.0
never	23	100	1	4.35	16	69.57	5	21.74	1	4.35
	157	100	32	20.38	93	62.42	25	21.74	2	1.27

$x^2 = 31.19$ df = 9 $p < .001$

8-2) 다른 가족원에 비해 가내발언권이 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생계비를 부담하는 사람과 8-3)는 아주 의의있는 상관을 보여준다($<p.001$).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F. 가계관리의 결과 가족의 만족도

家庭管理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家族員의 욕망충족을 통하여 人間發達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家計管理의 良, 不良은 그 결과에 따라 家族員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20.38%가 아주 만족스러워 하며 자기 가족에 대

Tabie 10. Household's Income Forms (I.F) & Family Finance Management (F.F.M)

F.F.M.	I.F.	Total N	Total %	A type N	A type %	B type N	B type %	C type N	C type %
		157	100	55	100	37	100	65	100
Ⅰ	Husband	78	49.68	38	69.09	18	18.18	22	12.73
	Wife	45	28.66	10	18.18	8	21.62	27	29.73
	Both	34	21.66	7	12.73	11	41.54	16	24.62
		$x^2=17.37$		df=4		p<.005			
Ⅱ	Husband	41	26.11	11	20.00	14	37.84	16	24.62
	Wife	111	70.70	43	78.18	23	62.16	45	69.23
	Both	5	3.18	1	1.82	0	0.0	4	6.15
		$x^2=6.93$		df=4		n.s.			
Ⅲ	Husband	8	5.10	4	7.27	2	5.41	2	3.08
	Wife	106	67.52	40	72.72	19	51.35	47	72.31
	Both	43	27.39	11	20.0	16	43.24	16	24.62
		$x^2=7.59$		df=4		n.s.			
Ⅳ	in detail	35	22.29	18	32.7ℰ	6	16.22	11	16.92
	roughly	48	30.57	17	30.91	14	37.84	17	26.15
	not at all	74	47.13	20	36.36	17	45.95	37	56.92
		$x^2=7.88$		df=4		n.s. (p<.1)			
Ⅴ	Always	38	24.20	18	32.73	4	10.81	16	24.62
	Usually	24	15.29	9	16.36	5	13.51	10	15.38
	Sometimes	72	45.86	21	38.18	23	62.16	28	43.08
	not at all	23	14.65	7	12.73	5	13.51	11	16.92
		$x^2=7.88$		df=6		n.s.			

Ⅰ : the Hol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Ⅱ : Total Income Manager
Ⅲ : the Manager of Cost of Family Living
Ⅳ : Family Finance Management Planning
Ⅴ : Communication Level within Family Members.

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62.42%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면에서의 측정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계관리가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응답자가 주부이고, 가족의 만족도에 대하여 주부자신의 느낌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의 만족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

주부의 연령별, 등의 변인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표생략). 또 가계관리자가 누구인가에 의한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표 9)에서 보듯이 가족간의 의사소통도

가 클수록 만족도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부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항상 이루어져야 가정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집단과 개개인의 人的 發達을 도모하여 정신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貨幣所得類型과 家計管理

앞서 제주도 가계의 화폐소득유형을 세가지로 요약 구분하여 그 성질을 파악하여 보았다.

여기서 화폐소득 유형에 따라 家計管理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에서 보면,

① 安定的인 所得類型을 가진 집단 (A type)에서는 남편이 생계비를 부담하고, 불안한 소득유형의 집단 (B, C Type)에서는 부인이 부담하는 율이 비교적 높다($p<.005$).

② 총수입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유형의 집단 (A)에서는 부인의 관리율이 높고, 기본소득외에 변동적인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비교적 남편의 관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아니다.

③ 생계비관리자의 경우, B type의 집단에서 부인의 관리율이 비교적 낮고 (51.35%), 상대적으로 남편의 관여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남편관리는 5.41%이지만 부부공동 관리율이 43.24%로써 남편관여율은 48.65%가 되는 셈이다.)

④ 安定的인 所得을 가진 집단일수록 예산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쉬운 집단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不安定한 所得 집단일수록 오히려 예산의 필요성이 절실한 데에도 그러지 못한 실태여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⑤ 安定的인 所得集團에서 家族內 의사소통도가 원활함을 볼 수 있다. (평균 24.2%, A집단 —32.73%)

이상에서 貨幣所得類型에 따른 家計管理行動은 ①을 제외하고 有意한 수준에서 차이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다 세밀한 조사 방법과 조사도구를 활용하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硏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Ⅴ. 要約 및 結論

濟州道 家計管理의 實態를 分析하고, 그 特性에 맞는 家計管理 方向을 모색해 보려는 目的으로 시도된 본 硏究는 所得의 類型을 추정하고, 家計管理實態를 調査하였으며, 所得類型과 家計管理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結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제주도 가계의 소득유형은 약 절반 가량이 불안정한 소득형태를 갖고 있다. 소득유형은 Nickell의 분류와는 좀 다른 5가지 형태를 나타냈고,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 데에는 제주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原因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추정된 5가지 유형을 所得의 安定性과 水準에 의하여 3가지로 要約 再分類하였다. 家計의 就業狀況, 主된 家業, 生活水準別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여기서 생활수준별 차이는 소득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기 보다, 소득유형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즉, 소득이 안정적인 집단일 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② 제주도 가계는 관리에 있어서 총수입과 생계비의 관리, 생계비 부담 등을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他地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夫婦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관여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意思決定도 부부중심이었다. 가계관리의 결과 家族員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豫算生活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主婦의 就業有無, 가계의 취업상황, 주된 家業, 생활수준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계비 부담자와 가계관리자는 가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所得의 類型과 家計管理는 有意한 水準은 아니지만 相關性이 엿보여서 앞으로 연구의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1. 제주도 가계는 所得의 불안정성이 높은데 家計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확실하고 전전한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定期的이고 固定的인 所得을 늘이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생계비 지출을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가계의 不安定性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예산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家庭管理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家計管理에 있어서, 夫婦中心의 관리, 특히 婦人의 관리권이 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가능하면 子女를 포함하는 全家族의 참여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연구에서 副次的으로 밝혀진 결과로써 제주도 女性의 勞動經濟的 能力은 타지방에서도 본받아야 할 家庭管理者로써의 훌륭한 資質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家計管理形態를 推出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諸變因들을 分析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장명욱, 家庭管理學, 교문사, 1976, p. 67
2. A.W. Troelstrup, The Consumer in American Society, McGraw-Hill Co., 5th ed., 1974, p. 95.
3. Nickell, Rice, Tur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1976, p. 273.
4. 이기춘, 家庭經濟學, 교문사, 1976, p. 15.
5. 장명욱,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대한 연구」, 家庭管理學研究, 木蓮會刊, 1976, p. 103.
6. 李光奎,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박영사, 1975, pp. 30~33
7. Nickell et als., *op. cit.*, 1976, p. 284.
8. *Ibid.*, pp. 285~289,
9. 이기춘, 前揭書,
10. *Ibid.*, p. 147.
11. Nickell et als., *op. cit.*, pp. 311~314.
12.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70, pp. 387~388.
13. _____, 「한국 농촌가족의 권력구조」, 아세아여성연구 제 8 집, pp. 3~17.
14. 이효재, 가족과 사회, 진명출판사, 1972. p. 234.
15. 이기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권 2호, 1974, p. 33.
16. 양희수,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1967, 고대출판부, p. 223.
17. 고황경, 이효재, 이만갑, 이해영,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1963, 서울대출판부 p. 46.
18. 이기춘,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1 호, 1975.
19. 박명희, 「한국어촌의 가계관리 연구」, 관동대논문집, 5집, 1977, pp. 327~340.